

第 37 回
전 국민 속예 술경연대회
(영변성황대제)

日時 : 1996. 10.16 ~ 18

場所 : 京畿道 城南市



平安北道民俗保存會

人 事



京畿道 城南市에서 開催되는 今年도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우리 平安北道에서는 「寧邊城隍大祭」가 出演하여 平北의 民俗藝術과 文化傳統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게 된 것을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祖國으로부터 많은 文化遺産을 물려받아 繼承發展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祖國이 分斷되어 望郷 40여년의 恨을 간직한 채 우리의 郷土文化藝術은 北韓 共產集團의 金日成 父子 偶像화로 말미암아 文化와 藝術이 이질화되고 흔적없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民族文化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고유의 文化藝術을 올바르게 理解하고 正確하게 再現하여 새로운 文化暢達에 기여하는 동시에 후손들에게 값진 遺産으로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參加를 계기로 全道民이 民族文化에 큰 觀心을 가지고 聲援과 支援을 아끼지 않을때 우리 平北 道民이 가꾸어온 文化藝術의 우수성과 자랑스러움을 다시한번 確認하고 무한한 矜持와 自負心을 갖게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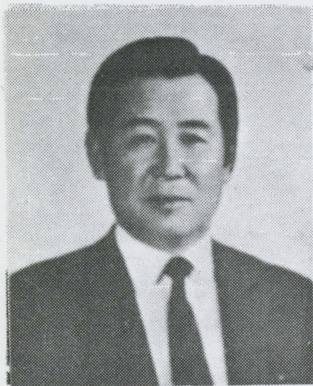
아무쪼록 城南市에서 열리는 第37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우리 모두의 祝祭가 될 것을 期待하면서 이번 「寧邊城隍大祭」의 出演을 위해서 아낌없는 支援과 激勵을 보내주신 道民 여러분께 感謝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傳統民俗藝術을 발굴하고 후손들에게 祖上의 빛난 얼과 자랑스러운 藝術性을 심어주는데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大會를 통하여 우리 民族 固有의 文化藝術을 더욱 꽃피우고 子孫萬代에 길이 빛낼 수 있는 알찬 結實을 거둘 것을 確信하면서 道民 여러분의 聲援에 다시한번 感謝를 드립니다.

1996年 10月 日

民俗保存會長 崔 滿 櫓

激 勵 辭



民俗文化藝術의 大祭典인 금년도 第37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京畿道 城南市에서 開催하게 된 것을 慶祝하면서 우리道를 代表하여 「寧邊城隍大祭」가 出演하여 祖上의 일과 우리 固有의 民俗藝術을 再現하게 된 것을 200萬 道民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激勵의 聲援을 보내는 바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民俗藝術競演大會에 敬탄과 찬사를 보내면서도 祖上의 슬기가 담긴 우리의 民俗藝術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現實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껴 왔으나 다행히도 最近 우리는 두고온 故鄉의 文化의 뿌리를 찾고 이를 繼承 發展시키려는 努力이 활발하게 展開되고 있으며, 全道民의 觀心과 聲援이 높아지고 있음은 우리의 傳統文化를 연구하고 진흥시키려는 文化藝術人 여러분의 피어나는 努力의 結果이기에 더욱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로부터 民族固有의 숨결과 향기가 담긴 우리의 傳統文化藝術을 올바르게 理解하고 正確하게 再現함으로써 傳統文化를 繼承 發展시키고 우리의 후손에게 原形대로 承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責務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매년 開催되는 民俗藝術競演大會에 우리道の 代表가 參加하는 일은 더욱 값진 뜻을 가진 것이며 文化藝術을 崇尚하는 우리 道民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出演하는 「寧邊城隍大祭」의 再現을 위해 物心兩面으로 努力해 주신 民俗保存會 崔滿櫂 會長님을 비롯하여 理事陣과 出演陣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感謝드리며, 그동안의 努苦에 대하여 致賀를 드리는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96年 10月 日

平安北道知事 張 正 烈

激 勵 辭



금년도 第37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城南市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本道에서는 民俗保存會가 주관이 되어 옛부터 寧邊地方을 중심으로 平北 일대에 널리 전래되어온 「寧邊城隍大祭」를 가지고 參加키로 하였습니다.

衷心으로 祝賀와 激勵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번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出演하는 「寧邊城隍大祭」 이외에도 平北지방에는 「용암포 풍어제놀이」 定州 「달래강 망패싸움」 慈城, 昌城, 楚山, 碧潼 등지의 「말발굽놀이」, 「동줄다리기」, 「옥칠내기」, 「혜뚜살이」 등 그 어느 地方 民俗에 비한다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民俗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祖上들로부터 傳來되어온 이와같은 우수한 많은 民俗놀이가 있음에도 이를 傳承, 發展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社會에서는 近間 高度의 산업화와 기계화 文明에 밀려 옛것을 소홀히 하고 새것에만 집착하는 風土가 造成되고 있음을 볼때 祖上들이 물려준 자랑스러운 民俗藝術의 맥이 끊어지지나 않을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政府가 해마다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를 열어 傳統文化와 固有 民俗을 자랑스럽게 傳承, 保存하자는데 온갖 精誠을 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로 제30회를 맞게 되었으니 꼭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종목을 出演시켜 上位入選등 좋은 成績을 올려 왔으며 이번에도 崔滿櫛 民俗保存會長을 위시한 任員 여러분과 出演陣의 熱演으로 좋은 成果를 거둘 것으로 確信합니다.

앞으로 더 훌륭하고 많은 우리 固有의 民俗을 찾아내 祖上의 얼과 맥을 후세들에게 이어주고 우수한 傳統民俗文化를 傳承, 發展시키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大會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에게 深深的 感謝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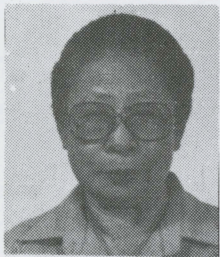
1996年 10月 日

平安北道 中央道民會 會長 金 泰 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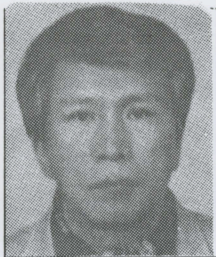
평안북도민속보존회

회 장: 최남억 고 문: 김태신 이 사: 강오륜
 명예회장: 장정열 조동영 현이복
 김여찬 현두경
 양대길 유명화

<당 주>



정대복



박인오



이종남



정원혜



장영희



고영언



이승용



홍순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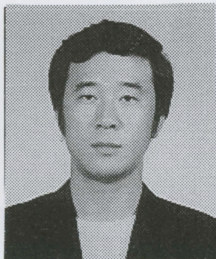
황명숙



이명선



곽창수



최수진



이병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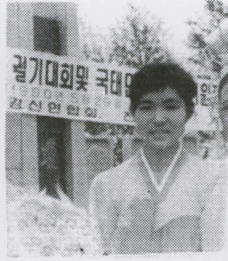
김순남



임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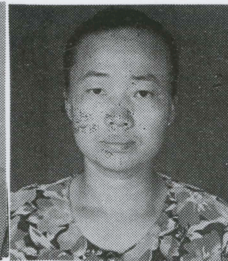
김점순



박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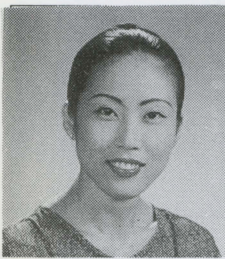
이경애



소미아



이미숙



최은주



염태호



이정임



안인숙



안윤정



함순애



김점숙



박숙희



황영숙



김영희



정숙자



김영심



문삼자



정춘자



이윤영



임명숙



박현주



명희



김진난



이춘욱



정대님



김미경



임종희



장성자



이순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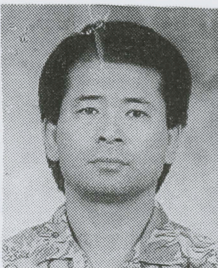
김정자



임만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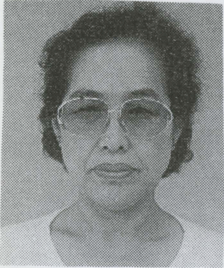
김정자



박병태



김국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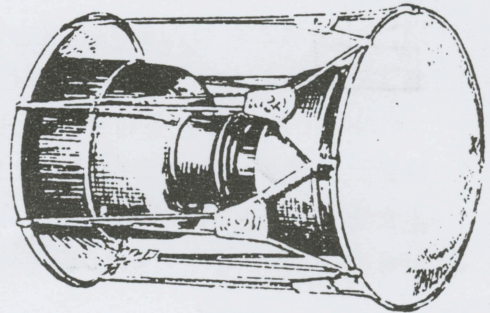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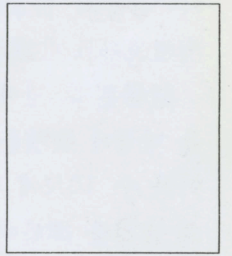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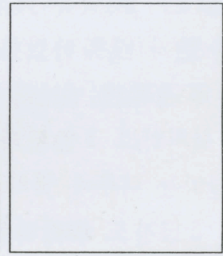
이혜숙



김인숙



남청자



寧邊城隍大祭 (당굿) 解説文

오랜 옛날 우리 祖上들이 部落社會를 이루면서 生活하는 중에 뜻하지 않은 모든 災厄을 免하고자 部落의 守護神으로 崇仰하게된 것이 오늘의 城隍神이요 그 神을 모시는 곳이 城隍堂이다.

平安北道 어느 地方 어느 部落을 가도 古木이 유달리 무성한 곳에는 城隍堂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城隍大祭를 올리는 것을 당굿(堂굿)이라고 한다. 특히 이곳 지방에서는 寧邊 당굿과 鐵山 奉靈館 당굿이 有名하며, 寧邊城隍大祭의 祭壇은 北堂과 南堂이 있어 각기 北部洞, 南部洞의 守護神으로서 崇仰되었는데 北堂에는 市場商人들이 中心이 되어 “장터契”를 組織하여 經費를 負擔하고 一部는 邑民으로부터의 寄附로 充堂할 수 있어 南堂보다도 北堂의 勢가 優勢하였다.

祭場은 그 당시 寧邊學校(옛날의 客舍 앞) 道路上에 3계단으로 된 짚을 덮은 假지붕을 만들어 祭壇을 설치하고 5色천과 造花로 장식하였고, 좀 떨어진 느티나무 다리위에 높이가 수 10尺에 달하는 나무에 꽃바구니 그네를 달았다. 大祭는 一年에 한번 또는 隔年으로 吉日을 擇하여 5日정도 奉行하여 部落民의 疾病을 免하고 立身出世의 神德을 입는다고 믿기 때문에 莫大한 祭費를 家家戶戶 負擔하면서 精誠을 다하여 온 部落民이 大祭에 參加한다. 祭官은 部落民中에서 年長有力한 者로서 奉祭에 一家見이 있는 者를 擇하였고 神主는 巫女 5~6名과 장고, 징, 제금, 팽과리, 새납등 10여명이 참여한다. 우선, 祭官 神主關係者一同이 堂에 나아가 간단한 祭祀를 올리고 神位를 가마에 태워 先頭에 모시고 神主(巫女)는 將師服으로 假武將하고 말을 타고 뒤따르며, 祭官, 巫女, 秦樂, 參觀者順으로 行列을 지어 장단에 맞추어 架設祭壇에 이르러 神位를 祭壇에 모시고 祭官에 의하여 大祭가 엄숙하게 奉行된다.

이와같이 城隍祭를 올린 후 巫女들에 의하여 당굿이 시작되는데 먼저 城隍神을 모시고 降新굿, 大監놀이, 거티굿등 順으로 보통 4~5일 또는 1주일간 계속되는데, 특이한 것은 巫女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흥겹게 춤과 노래를 부를때 이를 구경하던 部落民들이 습勢하여 춤을 추며 한데 어울려, 온 동네는 祝祭 분위기로 휩싸인다.

이러한 神遊가 계속되는 동안 中央에 마련된 “祭錢그릇”에는 많은 金品이 회사된다. 여러날 계속되던 城隍祭의 余興이 마지막날에 이르면 大祝祭의 하이라이트인 巫女들의 『꽃등지』타기 行事가 벌어진다. 巫女가 『꽃등지』에 올라타고 춤을 출때 『꽃등지』는 古木나무가지에 걸쳐져 동아줄을 당겨 서서히 높이 昇天할 때 등지속의 巫女는 차츰 빨라지는 장단에 맞추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복주머니를 내려 뿌리던 열광하는 관중들은 “와-” 하고 탄성을 높이면서 제각기 행운의복주머니를 차지하기 위하여 야단 법석이며 굿은 最高絶貞에 이른다.

高空에 매달린 『꽃등지』속의 巫女가 춤추는 모습은 昇天하는 仙女의 모습을 彷彿케하여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넋을 빼앗고 황홀감에 도취하도록 한다.

이와같이 며칠간 계속되던 大祭는 이 『꽃등지』의 昇天舞로 最后를 장식하고, 모셨던 神位는 隊列을 정돈하여 다시 本堂으로 모셔가는 것으로 당굿의 막은 내린다.

이 당굿이 끝난후에도 꽃등지를 달았던 동아줄은 사시사철 그 神本에 매달아 두고 하늘과 통하는 “신명줄”이라 하여 마음에 죄지은 일이 있거나 가책받은 일이 있으면 이 동아줄을 붙잡고 참회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다.

- ◎ 資 料 : 朝鮮의 鄉土神 (第1部)
部落祭
調査資料 第44輯 87項~97項
西記 1938年度 發刊 (朝鮮總督府 發行)
- ◎ 考 證 : 정대복(여80세) 대한경신 연합회고문
- ◎ 衣裳考證 : 박인오(남60세) 한국민속보존회 원장

位 置	擔 當	動 作
5. 무 대 당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물; 떡, 과일, 복어, 술, 촛대, 향로 ○ 제관; 갓, 두루마기, 짚신 ○ 제사가 끝나면 떡, 술을 사방에 조금씩 던진다 ○ 대제가 끝나자마 비나수..... 선왕맞이굿..... 춤..... 노적꾼이 들어와 무녀와 어울려 춤을 춘다.
6. 꽃동지 승천	제 관 당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전그릇에 돈을 놓는다. ○ 덕담을 한다. ○ 만세 바지 ○ 꽃동지에 탄다. 꽃동지잡이 ○ 밧줄을 천천히 당겨 꽃동지를 승천시킨다. 필 목 잡이 ○ 오색필목을 각각 한필씩 잡아 준다. (잘퍼서 올린다.) 당 주 ○ 복을 던져준다. 평민, 무녀 ○ 복을 던져주면 그것을 받는다.
7. 꽃동지 하강	꽃동지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을 서서이 내린다. ○ 무녀는 빠른 장단에 노래와 춤을 춘다.
8. 무 대 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마에 신위를 다시 모신다. ○ 일렬로 정돈하여 한바퀴 돈뒤 심사위원과 관중에게 경례를 하고 퇴장한다.

경 기 지 구

도민회장 김 득 호